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와 고립된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시민옹호인을 양성했고, 시민옹호인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인천에 ‘발달장애 친화마을’이 생겼다

글 정재학 작가 / 사진제공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오대인(54) 씨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몸단장에 한창이다. 시민옹호인 김숙희(54) 씨가 집으로 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이 옷 저 옷 갈아입느라 거울 앞에서 떠날 줄 모른다. 어머니 김연세(76) 씨도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오 씨는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다 다리까지 불편해서 바깥 활

동이 어렵다. 노모와 함께 주말에 성당에 가는 것을 제외하면 집에서 성경 필사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다.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옹호인 김 씨를 만나면서 그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 머리 염색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고 표정도 밝아졌다. 2주일에 한 번 김 씨를 만나 공예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

게 됐다. 동갑인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금방 친구가 됐다.

복지관은 2016년부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의 핵심 과제는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맺기’를 통해 고립된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시민옹호인 양성이다.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교육시킨 후 발달장애인과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교류하도록 했다. 시민옹호인의 활동은 안부 확인이나 말벗 역할에서부터 병원에 함께

다니거나 세탁소 등 주변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것,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한 달에 두 번,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라도 하도록 했다. 오 씨와 김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다.

딱 닫힌 마음의 문을 열다

23명의 시민옹호인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옹호인 양성과 교육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청소년기까지는 복지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성인이 되면 마땅히 이용할 서비스가 없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접촉한 발달장애인 중에는 20여 년 동안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발달장애인들이 꽤 있었다. 40~50대 자녀가 60~70대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집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다.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집을 방문하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집이 많았다.

어렵게 23명의 발달장애인을 참여시켰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담당자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민옹호인’ 간담회 모습. 시민옹호인 간담회는 월 1회 열린다.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했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1차년도(2016년 7월~2017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간담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다.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 모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옹호인 김문영(54·가명) 씨는 발달장애인 최영순(59·가명) 씨가 우연히 털어놓은 차명계좌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자신의 수급통장을 활동보조인 이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서로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통장 문제를 정리해주었다.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시민옹호인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80대 노모와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 김길남(50·가명)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노모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김 씨의 시민옹호인 박연희(61·가명) 씨였다. 박 씨는 바로 달려가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몇 년 동안 집수리를 하지 않아 방바닥 한 구석이 푹 꺼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다. 시민옹호인이 집에 드나들자 신경이 쓰였는지 어느 날 말끔하게 수리를 해놓았다. 바깥의 작은 바람이 집안은 물론 장애인 개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의 마음에까지 불어온 것이다.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다. 시민옹호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맺기 프로그램은 6개월을 넘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맺기 프로그램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하면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원예,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 공예, 볼링 등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처음 강좌를 개설했을 때는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1차년도 수업을 함께하고 나서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장애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고 잘 몰랐을 뿐이었다.

2차년도(2017년 7월~2018년 6월)에는 3개 주민센터를 추가해 총 8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센터 외에도

아가페교회, 그루터기봉사단 등 지역단체에서도 볼링과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조사다. 인천대 전재희 교수의 도움으로 1차년도에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를 실시했고, 2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지표 개발과 조사를 실시했다. 영화관, 주민센터,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10개 시설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관의 관계맺기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복지관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고군분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승환 아산재단 사회복지 자문위원(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복지관의 노력은 타 지역으로 전파돼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까지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복지관(관장 최성남)은 1994년 설립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